

지역 소식통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3월 1일 전면 유료화 시행

부안군이 조성한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로 운영된다.

부안 마실공영주차장은 부안 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차를 방지하기 위해 옛 농업은행 부안근지구 부지에 지난해 9월에 착공해 이달 완공하고 임시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부터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2시간 이후부터는 기본요금 2000원에 2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3만원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최초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어 부안상설시장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하므로 인근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 생산 9개 업체 우수 가공식품 선정

정읍시는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정읍시 학교급식에 납품할 지역생산 우수 가공식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가공식품은 정읍시 소재 사업장에서 원재료의 60% 이상을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해 HACCP 시설에서 직접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심의회는 서류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미루네 거들머의 사과주스 ▲해물 푼은 딸기농원의 딸기잼 ▲해이람(영)의 떡국떡 ▲대종년(영)과 농업회사법인(주)다원에프에스의 고춧가루 ▲마미팜농원의 찹쌀 ▲(주)두손푸드의 죽류와 음료 ▲마이코인터내셔널의 누룬지와 과자류 ▲들미농산의 단무지 등 9개 업체의 가공식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공급업체는 3월부터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가공품을 납품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소통 공간 '연지마중'

정읍시, '연지마중' 개소식 도시재생의 마중물 기대

정읍시 연지사장 내 주민들의 소통거점 공간인 '연지마중'이 문을 열면서 잊혀진 구도심에서 생기 넘치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2일 유진섭 시장과 황혜숙, 정상철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지마중' 개소식을 진행했다.

'연지마중'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소통 거점 공간이다. 공기업 제안형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연지마중'은 기존에 비워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46㎡ 규모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공유주방과 전시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 문화공간은 물론, 초기 창업자들의 시범사업 운영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주민공동체형성을 위한 주민소통 커뮤니티 기능 등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개방된 공유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연지마중'이 주민공동체를 이끌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활력 넘치고



정읍시는 지난 22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주민협의체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지마중' 개소식을 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시재생의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격포 닭이봉 전망대 3월 개·보수 첫 삽

고려청자 모형, 휴게공간 등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변산마실길 및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서해안 천혜의 절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다고 밝혔다.

건축된 지 35년 만에 새단장을 하게 되는 닭이봉 전망대는 지난 198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그동안 격포 채석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닭이봉 전망대는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10억원 등을 들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며 전망대 2층에는 변산마실길 및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가 들어서고 3층은 휴게공간과 전망대 등으로 조성된다.

전망대 전체적인 형태는 고려청자 모형으로 주변과 어울리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사업을 통해 관광부인의 명성을 되찾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권 관광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view)는 수려한 채석강의 해식절벽과 숲섬의 해남이를 감상할 수 있는 환풍관 장관을 연출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상동·용달샘·수성 작은도서관 방과 후 마을 학교 선정

정읍시가 운영하는 14개의 작은도서관 중 상동·용달샘·수성 작은도서관이 정읍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1년 방과 후 마을 학교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3개 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상동 작은도서관은 '하루부터, 영

어 회화', '한국의 유네스코'를 운영하고, 용달샘 작은도서관은 '아트공예'와 '집밥 요리교실', '역사 탄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수성 작은도서관은 '니하오 중국어교실'과 '한국의 유네스코', '그림책 세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동

들에게는 안전한 윈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읍시 작은도서관은 방과 후 마을 학교 사업과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200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선정, 국비 1억6500만원 확보 15명 인건비·자기계발비 등 최대 10개월간 지원

고창군이 최근 고용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전문분야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고창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선정돼 국비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비영리법인(단체)과 사회적기업에서 디지털 전문분야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청년(만18세이상 39세이하) 인재를 채용하면 인건비와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3월4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해 디지털 전문분야(온라인콘텐츠

제작·관리, 온라인플랫폼 구축,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 일자리를 고창청년 15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분야 일경험 제공과 교육비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로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취업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창 청년들만을 위한 취업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고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는 지난 23일 긴급 임시회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 새만금 해수유통 반영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23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상시적 해수유통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해수유통 반영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호 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지난 해 까지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구간은 6등급까지 악화됐다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해수유통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며 악취와 오염이 줄어들었음과 국내의 간척사업 선진사례를 통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수질악화로 매년 어획량 감소와 물고기 폐죽음이 반복돼 부안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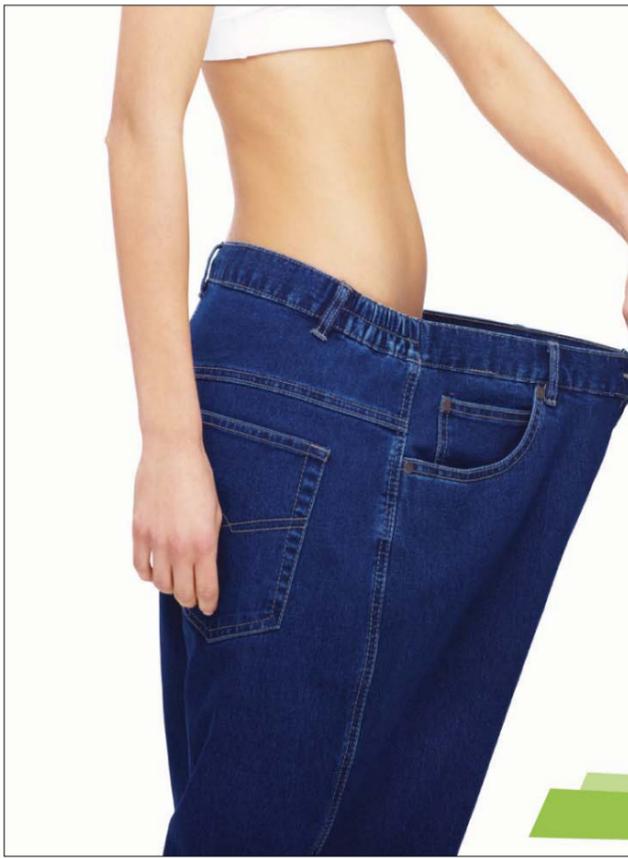
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반영, ▲수질 오염 방지대책 수립, ▲수질 개선을 위한 법정부 T/F팀 구성·운영 등을 강력하게 촉구·건의 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이한수 의원은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 개선 사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늘어났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고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즉각적인 해수유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수유통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중앙부처에 발송하고 앞으로 해수유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